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2주차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여성과 가족(1910~30년대)

김 지 민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개화기 조선과 여성

- 개화기 개관
- 문명개화론과 여성
-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여권통문」
- 서양과의 만남 – 선교사들과의 조우

02. 일제통치의 시작과 3.1운동, 그리고 여성

- 일제강점기의 시작
- 여학교
- 3.1운동과 여학생들의 참여
- 3.1운동과 전도부인

03. 신여성과 여성해방 담론

-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 신여성의 등장
- 여성해방 담론과 비판

04. 호주제, 이혼, 그리고 직업부인의 등장

-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 이혼제도의 변화
- 직업부인

05. 경계의 여성들

- 조선에 온 일본인 여성
  – 재조일본인 여성과 내선결혼
- 미국으로 간 조선인 여성 - 사진신부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학습목차

학습목표

- 일제의 식민지에서 이혼과 호주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1920~30년대 직업활동을 한 여성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 이혼제도의 변화
- 직업부인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4차시

호주제, 이혼, 그리고 직업부인의 등장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일제 하 법과 가족생활

- 법제적 장치가 일상적인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 1912년 일제의 조선민사령 제정
- 민사령 개정을 통해 일본 민법을 이식하려 노력

일본식 호주제의 도입

- 조선시대 호주는 '집안의 어른'이라는 상징적 존재
- 일제강점기 도입된 호주제는 일본식 제도
- 여성에게 호주권이 부여되지 않음 – 전통적인 조선의 관습과 다름
- 남성 가부장이 사법상 집안의 주재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음

일본식 호주제의 영향

- 결혼한 여성의 법적 권한이 남편에게 위임
- 아내의 권리가 결혼 안에서 제한
- 남편과 아내를 상하 관계로 배치하는 효과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한 상속

- 장남이 재산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차남 이하 남자형제들이 균등 상속
- 딸이나 처에게는 분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 친정에 대한 상속권 인정하지 않음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이혼제도의 변화

이혼에 관한 법적 변화

-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억제, 여성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
- 일제 시기 동안 이혼이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대두
- 여성이 합법적으로 이혼청구권을 갖게 됨

이혼법

- 다른 가족법 조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일본 민법을 의용
- 부부 쌍방의 이혼청구권, 쌍방 협의에 의한 이혼이 법적으로 허용
- 여성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근대적 이혼법이 신속하게 도입

조선민사령 공포(1912)

- 1912년 공포 당시, 이혼은 관습을 따르도록 함
- 조선시대 '칠거(七去)'와 '삼불출(三不出)' 원칙
- 이혼할 때 부모나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내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음

법과 현실의 차이

- 1910년 이래 이혼 건수가 매년 2배 가량 증가
- 관습에 존재하지 않는 재판이혼이 이미 성행
- 1910년대 재판이혼의 청구자 90%가 여성

일제시기 이혼소송

- 중산층 여성뿐 아니라 구여성 및 하층 여성도 다수
- 남편이나 시부모의 학대, 남편의 복역, 생사불명 등 다양한 이유
- 노인부부의 이혼소송 건수 증가, 이혼하기 위한 계략 꾸미기나

  애정 없는 결혼에 대한 회의로 이혼하는 등 다양한 요구

이혼에 대한 계층적 인식 차이

- **중산층 여성**
  - ‘이혼=계급적 추락’이라는 인식
  - 미신고된 혼인이나 본처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혼소송
- **하층 여성**
  - 재혼의 가능성을 확실히 하고 간통죄 피소를 예방하기 위한 이혼소송
  - 시부모와 남편의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요구하기도

다양한 이혼 사례가 의미하는 것

- **구여성**
  - 근대화 과정에서 수동적인 피해자로만 머무른 것이 아님
- **여성들의 요구가 총독부의 법 체제에 영향을 준 사례**
  - 1922년 민사령 개정, 협의이혼에 대한 법이 확립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직업부인

여성의 노동 참여

- 도시화 및 산업화로 공장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인력 증가
-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 여성의 경제 활동을 부추김
- 여성의 자각, 교육 확대, 빈곤 탈출 욕구 등
- 1920년대~40년대 여성의 노동참여율 30~40%

여성의 직업활동

- 농업을 넘어 공업, 상업교통업, 공무자유업 등 다양한 분야로
-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한 '신여성'들
- 신종직업 등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 – '직업부인'으로 불림

전화교환원

직업부인

- 여성이 공공연히 사회활동을 하는 새로운 현상
- 근대적인 직종에 종사
- 신문, 잡지 등에 근대 신문물의 상징으로 등장

[출처01] 국립중앙박물관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직업부인

- 할로걸: 전화교환수
- 버스걸: 버스 차장
- 데파트걸, 숍걸: 여점원
- 그외 사무원, 접객 서비스직, 보모, 여직공 등

종로네거리 화신백화점의 모습

[출처02] 서울역사아카이브

여자 교원은

“현대 사회가 여자들에게 준 비교적 고급의 직업”

“관공립의 교사는 훈도라는 준관리”

동아일보 1931. 10. 11, 조선일보 1931. 10. 16

간호부는

“흰 ‘쪽도리’를 쓰고 깨끗한 ‘엡프롱’을 입은 천사”이며

“대표적인 근대적 직업여성”

동아일보 1928. 2. 27, 조선일보 1931. 10. 14

전화교환수는 “고속도의 줄과 소리와 빛의 얼킴으로 된 기계 문명을

운전하는 근대 문명과 스피드 시대를 상징하는 신종 직업”

조선일보 1931. 10. 13

데파트걸은 “근대 자본주의 물질 문명을 자랑하는 모든 상품을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옴겨주는 처녀군! 그들의 이름은 거리의 천사요, ‘데파트’의 여왕”

조선일보 1931. 10. 11

버스걸은 신종 직업중에서도 가장 “모험적이고 첨단적” “대도회의 중심부를 누비며

모든 모험과 농락과 싸운다는 점에서 가두 부인 직업 제일선에 나선 용감한 여성들”

조선일보 1931. 10. 15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여자 직공 중 가장 현대적 특색이 있고 또 비교적 다수인 것은
공장에 가서 노동력을 팔고 있는 여직공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훌륭한 건물, 굉장한 설비도 으리으리하거니와
몇백 명, 몇천 명씩 어울려져 군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은
현대 문명의 자랑 같기도 합니다."

동아일보 1928. 2. 29.

제사공장의 여성 노동자들

[출처03] 서울역사아카이브

직업부인이 겪은 이중의 어려움

1 성차별과 편견

- 이영실 (의사)

"여자는 용기가 없고 연구심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다."

매일신보, 1931. 11. 15.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직업부인이 겪은 이중의 어려움

1 성차별과 편견

- 송계월 (기자)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여자는 월급이 적고 또 여자를 채용할 때는 여자를 일종의 상품 시하는 경향이 있다"

매일신보, 1933. 01. 05.

직업부인이 겪은 이중의 어려움

1 성차별과 편견

- 여성의 직업활동에 대한 찬반론

여성해방과 경제적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

VS

여성이 취업을 위해 결혼과 가정을 기피하면 안된다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직업부인이 겪은 이중의 어려움

1 성차별과 편견

"단지 직업 여성으로서의 자유와 독립을 동경하여

결혼에 의한 가정 생활을 기피"하기 위한

취업은 중대한 문제

〈여성과 직업〉, 《동아일보》 1936. 2. 20.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직업부인이 겪은 이중의 어려움

2 민족적 차별

- 여성 교사들 임금이 낮고 승급의 기회가 적음

<1939년 당시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남자 교원 105원

일본인 여자 교원 79원

조선인 남자 교원 55원

조선인 여자 교원 48원 이의석, 〈수자잡관〉, 《비판》 1939.3

직업부인이 겪은 이중의 어려움

2 민족적 차별

- 의사와 간호사 간의 차별, 간호부장과의 문제로 쟁의가 일어나기도 함
- 1933년 통계에 의하면, 조선 내 의사 중 48%는 일본인 (매일신보, 1933. 12. 27; 동아일보, 1929. 12. 22)
- 의사-간호사 간 차별과 갈등은 민족 차별의 연장선

직업여성들에 대한 섹슈얼리티 담론

"젊은 여성이 직업을 가질 때에는 특별한 자각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회의 내면처럼 추악하고 복잡한 것은 없다.

젊은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직접으로 이러한 추악에 물들일 기회를 자주 겪게 되는 것

이니 현대 젊은 여성의 많은 비극은 흔히 이러한 곳에서 생기는 것인가 한다."

〈직업을 구하려는 여러 여성들에게〉, 《조선일보》 1927. 3. 25.

직업현장의 성폭력과 성희롱

- 직업을 가진 여성을 섹슈얼리티와 연결시키는 편견과 사회적 낙인

직업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직업부인의 성공 조건으로

  “남자들이 잡생각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하시는 분”

  “남자들과 너무 함부로 놀지 않는 분”과 같은 항목을 포함 (조선중앙일보, 1935. 2. 3)

- 직업여성을 둘러싼 스캔들은 여성을 탓하는 분위기

- 일본과 조선에서 유사한 현상

직업여성들의 고충

- 중간계층 여성
  - ‘직업을 벗어나 가정에 복귀해야 한다’는 담론
- 하층 여성
  - ‘복귀할 가정도 없는 불행한 여성’으로 규정
  -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해야 한다’는 담론

마무리

- 식민지 조선의 여러 여성들의 경험
- 가족제도의 변화, 이혼, 직업 생활
- 평범한 여성들의 다양한 삶
- 다음 차시: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경계를 넘나든 여성들

SOURCES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출처0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건판 30398), 전화교환원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33182
[출처02] 서울역사아카이브 (아카이브 번호 103112, 유물번호 서15600)
https://museum.seoul.go.kr/archive/archiveView.do?type=D&arcvGroupNo=4309&arcvMetaSeq=38917&arcvNo=103112
[출처03] 서울역사아카이브 (아카이브 번호 H-TRNS-75551-877, 유물번호 서27617)
https://museum.seoul.go.kr/archive/archiveView.do?type=D&arcvGroupNo=2901&arcvMetaSeq=25965&arcvNo=75551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OC

기획·조정	교안	영상
이화진·정다영	이유정·윤승희	김록현